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최종 문서

사순 제1주간 | 시노드란 무엇인가

사순 제2주간 | 시노달리타스의 심장

사순 제3주간 | 배 위에서 함께, 그물을 던져라

사순 제4주간 | 풍성한 고기잡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순 제5주간 | 성령 안에서 대화



권두언

2026년, 우리는 사순시기를 맞이하며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디딤돌 삼아 부활의 희망을 향한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부활판공문제집은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최종 문서'의 핵심 정신을 바탕으로, 교회가 걸어가야 할 '함께 걷는 여정'을 묵상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시노드 최종 문서는 하느님 백성 전체가 서로를 존중하며 경청과 대화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식별하고, 공동 책임과 참여를 통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일깨워 줍니다. 시노드는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하느님 백성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식별해 나가는 영적 여정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본당과 가정, 일상 안에서도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번 판공문제집은 최종 문서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흐름을 각 주간 복음과 연결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시노드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본당 공동체 안에서 시노드적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사순시기는 하느님 앞에서 '나는 어디에서 있는가?'를 묻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둠, 혼란, 두려움을 진솔하게 마주하고,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이번 부활판공문제집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시노드 정신을 살아내도록 돕고, 부활의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맞이하게 하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CONTENTS

2026년 부활판공문제집

권두언

사순 제1주간 | 예수님께서서는 사십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

- 02 복음 말씀 | 마태 4,1-11
- 03 말씀 나누기
- 04 신앙배움터 _ 시노드란 무엇인가
세계주교시노드의 역사와 주요 결과
- 10 사순 제1주간 판공 문제

사순 제2주간 |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 12 복음 말씀 | 마태 17,1-9
- 13 말씀 나누기
- 14 신앙배움터 _ 시노달리타스의 심장
- 20 사순 제2주간 판공 문제

사순 제3주간 | 솟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

- 23 복음 말씀 | 요한 4,5-42
- 25 말씀 나누기
- 26 신앙배움터 _ 배 위에서 함께
그물을 던져라
- 32 사순 제3주간 판공 문제

사순 제4주간 |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 35 복음 말씀 | 요한 9,1-41
- 37 말씀 나누기
- 38 신앙배움터 _ 풍성한 고기잡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 45 사순 제4주간 판공 문제

사순 제5주간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 48 복음 말씀 | 요한 11,1-45
- 50 말씀 나누기
- 50 신앙배움터 _ 성령 안에서 대화
성령 안에서 대화의 구체적 방법
- 55 사순 제5주간 판공 문제

사순
제1주간

예수님께서서는 사십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

복음 말씀 | 마태 4,1-11

1 그대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2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정하셨다. 3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6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7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8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9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10 그대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11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보티첼리의 그리스도의 유혹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 악마는 40일간 단식하신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유혹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계의 욕구를 당신의 신적 능력으로 해결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을 현세적인 목적이 아닌, 사랑과 구원을 위한 사명에 사용하셔야 함을 아시기에,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유혹으로 악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느님의 보살핌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느님께 생명을 온전히 맡기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시험하는 잘못된 선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지막 유혹에서 악마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 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그것을 모두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를 약속하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하느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는 말씀으로 단호히 거절하시고,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시중을 돕니다.

이처럼 악마는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이용하여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어떤 필요도 하느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광야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2026년 부활판공문제집의 신앙배움터는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최종 문서”의 내용을 다루어 볼 것입니다.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 친교, 참여, 사명”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1년 10월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소집으로 시작되었고, 2024년 10월 26일에 「최종 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노드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성령 안에서의 대화” 과정으로 시작되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1년 10월 세계주교시노드 개막연설을 통해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의 개막을 선포하며, “시노드는 의회나 여론조사가 아니라, 교회적 사건이며, 시노드의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시노드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행사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경청하는 교회, 친밀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하셨습니다.²⁾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가 진행이 되었고, 그 모든 결과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최종 문서」입니다. 이를 살펴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시노드란 무엇이며, 그 역사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의 목표와 경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시노드란 무엇인가?

‘시노드’(Synod)는 교회의 거룩한 전승 안에서 사용되어 온, 오래되고 존중되어야 할 단어로서 전치사 쉰(σύν, ~와 함께)과 명사 호도스(ὁδός, 길)가 합성된 단어로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가리키며, 교리, 규율, 전례의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교회의 권위 하에 열리는 교회 회의의 의를 말합니다.

현재 시노드라는 명칭은 참석자들이 의결권을 갖지 않는 공청회적인 성격의 교구회의나 갖가지 규모의 주교회회의에 사용되고 있으며, 1985년판 「한국가톨릭대사전」에서는 시노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이후 수세기 간 ‘시노드’(synod)와 ‘콘칠리움’(concilium)은 서로 동의어로 엮바뀌어 쓰였으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서로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 이후 교회일치를 위한 큰 규모의 교회 회의에는 ‘콘칠리움’이 배타적으로 사용

되었으며 이것은 우리말로 ‘공의회’(公議會)로 번역되었다. 비록 성격이 다른 지역공의회가 있으나 시노드는 한 교구나 관구, 그리고 그 이상의 규모로 개최되며, 한 교구의 주교와 성직자, 또는 여러 교구의 주교들과 성직자, 혹은 주교들만이 모여서 여는 교회 회의로 공의회와 다른 점은 참석자들 모두가 의결투표권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다.”³⁾



시노드의 종류는 크게 교구 시노드(교구 대의원 회의)와 주교 시노드(주교 대의원 회의)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교구 시노드(교구 대의원 회의)** : 가톨릭 교회에서 교구 시노드라는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 초기 이후부터지만 그 기원은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회 조직이 확장되면서 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교리를 비롯해 교회 법령들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친교를 유지하는 등의 사목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에서 교구장 주교에 의해 교구 시노드가 소집되곤 했습니다. 중세 초기에는 교구내의 성직자와 수도자뿐 아니라 평신도 대표들까지도 참여했으나 교구 시노드가 교회법적인 기구로 정착되면서 평신도들은 여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평신도가 교구 시노드에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였습니다.

1983년에 반포된 「교회 법전」은 교구 시노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교회의 기본 단위는 교구다. 흔히 ‘개별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교구를 가리키며,⁴⁾ 교구 시노드는 교구장 주교가 교구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교구내의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등 교구 구성원들의 대표자(교구 대의원)들을 소집해서 하는 회의를 말한다.”⁵⁾

1917년에 발표된 옛 교회법에서는 교구 시노드가 10년마다 개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새 교회법에서는 교구 시노드 개최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교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⁶⁾

◆ **주교 시노드(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 가톨릭 교회는 교구를 기본 단위로 하지만, 각 교구가 모여 하나의 가톨릭(보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교 시노드는 보편 교회(세계 교회) 전체의 선익을 위해, 예컨대 “교황과 주교단의 일치를 드러내고 신앙과 도덕의 옹호 발전 및 교회 규율의 준수와 강화를 위하여, 세상에서의 교회 활동과 관련한 문제들을 숙고하기 위하여” 전세계의 여러 다른 지방에서 선발된 주교들의 회의입니다.⁷⁾ 주교 시노드는 교구 시노드와 달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생겨난 제도로 교황 바오로 6세의 자의교서(Apostolica Sollicitudo)에 의하여 1965년 9월 15일에 창설되었습니다.

1985년판 「한국가톨릭대사전」에서는 주교 시노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의교서와 교회법(342~348조)에 의하면,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는 교회법적 지위를 가지는 협의체로서 교황과 주교들간의 굳은 결속을 향상시키고, 신앙과 도덕의 옹호와 증진, 교회 규율의 준수와 강화를 위하여 교황을 보필하며 아울러 세계 속의 교회활동에 관련된 문제들을 심사숙고한다. 이 회의의 소임은 상정된 안건을 토의하고 건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황이 의결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안건을 의결하고 교황의 인준을 받는다. 이 회의는 의장인 교황과, 특별법에 의하여 선출되고 교황의 인준을 받은 대의원, 기타 교황의 임명을 받은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교황은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 사회하며 의사일정을 정한다.”⁸⁾

2. 세계주교시노드의 역사와 주요 결과

주교 시노드(Synod of Bishops)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결실로, 1965년 교황 바오로 6세의 자의교서(Apostolica Sollicitudo)를 통해 설립되었는데 크게 일반 정기 총회(Ordinary General Assembly), 임시 특별 총회(Extraordinary General Assembly), 그리고 특별 총회(Special Assembly)로 나뉩니다. 1967년 9월 29일에 제1차 일반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후 3년마다 열기로 하여 2021년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제1차 일반 정기 총회(1967년)부터 제16차 일반 정기 총회(2021년)까지의 주요 회차별 개최일자, 주제 및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정기 총회

회차	개최년도	주 제	주 요 결 과	후속 교황 권고 문헌
제1차	1967년	신앙의 보존 및 강화와 현대 세계에서 교리 교육	사목적 통일성 및 신앙 수호의 필요성 강조	
제2차	1971년	사제직과 세계의 정의	사제직의 본질과 독신 생활 재확인·사회 정의 실현에 대한 교회의 역할 강조	
제3차	1974년	현대 세계에서 복음화	복음화의 개념과 방법론 심화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 선교” (Evangelii Nuntiandi, 1975)
제4차	1977년	현대 세계에서 교리 교육	효과적인 교리 교육의 중요성 강조	요한 바오로 2세 “현대의 교리교육” (Catechesi Tradendae, 1979)
제5차	1980년	현대 세계의 그리스도인 가정의 역할	가정의 사명과 결혼의 불가침성 강조	요한 바오로 2세 “가정공동체” (Familiaris Consortio, 1981)
제6차	1983년	화해와 참회	성사의 중요성 재확인 및 사회적 화해 강조	요한 바오로 2세 “화해와 참회” (Reconciliatio et Paenitentia, 1984)
제7차	1987년	교회와 세상에서 평신도 신자들의 소명과 사명	평신도의 존엄성과 사목적 책임 강조	요한 바오로 2세 “평신도 그리스도인” (Christifideles Laici, 1988).
제8차	1990년	사제 양성	사제 양성 프로그램의 쇄신 강조	요한 바오로 2세 “현대의 사제 양성” (Pastores Dabo Vobis, 1992).
제9차	1994년	봉사하는 삶을 위한 봉헌 생활	봉헌 생활의 가치와 현대적 도전 조명	요한 바오로 2세 “축성생활” (Vita Consecrata, 1996).
제10차	2001년	유럽 주교 시노드 후속 조치	주교의 사목적 역할과 복음 선포의 중요성 강조	요한 바오로 2세 “양떼의 목자” (Pastores Gregis, 2003).
제11차	2005년	성체성사 : 교회의 삶과 사명	성체성사의 중심성과 전례의 중요성 강조	베네딕토 16세 “사랑의 성사” (Sacramentum Caritatis, 2007).
제12차	2008년	하느님 말씀 : 교회의 삶과 사명	성경의 중요성과 렉시오 디비나 강조	베네딕토 16세 “주님의 말씀” (Verbum Domini, 2010).
제13차	2012년	새로운 복음화	신앙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의 필요성 강조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 2013).
제14차	2015년	교회와 세상에서 가정의 소명과 사명	가정의 사목적 도전과 교회 응답 논의	프란치스코 “사랑의 기쁨” (Amoris Laetitia, 2016)
제15차	2018년	신앙, 젊은이, 소명, 식별	젊은이들의 신앙 여정 동반과 식별의 중요성 강조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Christus Vivit, 2019).
제16차	2021 ~ 2024년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 친교, 참여, 사명	시노달리타스를 통한 교회 근본 지침 확립.	프란치스코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최종 문서” (Documento Finale, 2025)

-. 자료출처: 바티칸 시노드 portal 홈페이지 (<https://www.synod.va/en.html>)

3.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2021-2024)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만남과 경청과 성찰의 순간을 우리가 복음의 기쁨 안에서 적어도 세 가지 기회들을 인식하도록 해 주는 은총의 때를 체험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시노드의 세 가지 목표를 주셨습니다.

◆ **구조적인 시노드 정신으로의 전환** : 행사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모든 이가 편안하게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 **경청하는 교회** : 흠숭과 기도 안에서 성령께 귀 기울이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일상의 관례를 벗어나 형제자매들의 희망, 신앙의 위기, 쇠신된 사목 생활의 필요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친밀함의 교회** : 하느님의 친밀함과 자비와 온유한 사랑이라는 방식을 따르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회와 세상과 더욱 큰 우정의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약함과 가난을 몸소 짊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드가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지만 다른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콩가르 신부의 말을 인용하며, 성령께서 제시하고자 하시는 새로움에 열린 “다른 교회”를 향하여 겸손되이 함께 걸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⁹⁾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달리타스”¹⁰⁾를 강조하고,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의 과정이 세례 받은 모든 이에 대한 경청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구들에게 이 시노드 체험의 핵심 주체들이 세례받은 모든 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요청한다. 배제될 위험이 있는 이들, 곧 여성, 장애인, 난민, 이주민, 노인, 빈곤 속에 사는 이들,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가톨릭 신자들을 포함하는 데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창의적인 수단도 찾아야만 한다.”¹¹⁾

미주

- 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예비문서(Preparatory Document)」, 1항
- ②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세계주교시노드 개막연설」, p3
- ③ 「한국가톨릭대사전」, 1985, p.708~p.709, “시노드”
- ④ 「교회법전」 368조 참조
“하나이고 유일한 가톨릭 교회는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그것들에서 존립한다. 개별 교회들은 주로 교구들이고, 또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성직 자치구와 자치 수도원구 및 대목구와 지목구 그리고 고정적으로 설립된 직할 서리구도 교구에 준한다.”
- ⑤ 「교회법전」 460조 참조
“교구 대의원 회의는 교구 공동체 전체의 선의를 위하여 아래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개별 교회의 선발된 사제들과 기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회합이다.”
- ⑥ 「교회법전」 461조 1항 참조
“교구 대의원 회의는 각 개별 교회에서 교구장 주교가 사제 평의회 의 의견을 듣고 개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 개최된다.”
- ⑦ 「교회법전」 342조 참조
“주교대의회회의는 교황과 주교들 사이에 밀접한 연합을 조장하고 또한 신앙과 도덕의 옹호와 발전 및 교회의 규율의 준수와 강화를 위하여 교황에게 자문으로 보필하며 아울러 세상에서의 교회의 행동에 관한 문제들을 숙고하기 위하여 세계의 여러 다른 지방들에서 선발되어 정하여진 시기에 함께 모이는 주교들의 회합이다.”
- ⑧ 「가톨릭대사전」, 1985, p.671~p.672,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 ⑨ 「개막연설」 p.3
- ⑩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최종 문서」 28항
“시노달리타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인류와 더불어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시노달리타스란 더 참여적이고 사명 수행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곧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모든 남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영적 새신과 구조 개혁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 ⑪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세계주교시노드 편람」, p.11

참고 문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예비문서(Preparatory Document)」, 2021
- 교황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세계주교시노드 개막연설」, 2021.10.9.
-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가톨릭대사전」, 1985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법전」, 1989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세계주교시노드 편람(VADEMECUM)」, 2021
- 교황 프란치스코,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최종문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5



사순 제1주간 | 판공문제

01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신 곳은 어디인가?

- ① 회당
- ② 우물가
- ③ 광야
- ④ 갈릴래아 호수

02 악마의 첫 번째 유혹 중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이 되라고 해 보시오.”

03 두 번째로 악마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라고 유혹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 ①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②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 ③ 사탄아 물러가라.
- ④ 주 너의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04 세 번째 유혹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에서 악마가 자기 말을 들으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재물
- ② 권력
- ③ 사랑
- ④ 명예

05 유혹을 이긴 예수님을 시종든 이는 누구인가?

- ① 천사들
- ② 마리아 막달레나
- ③ 요한
- ④ 베드로

06 세계주교시노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 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 ② 니케아 공의회 이후
- ③ 에페소 공의회 이후
- ④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후

07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의 주제가 아닌 것은?

- ① 친교
- ② 희생
- ③ 참여
- ④ 사명

08 제16차 세계주교회의를 개최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 ① 사제 양성
- ② 시노달리타스
- ③ 교리교육
- ④ 복음화

09 제16차 세계주교회의를 개최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특별히 배제될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특별히 배제될 위험이 있는 이”가 아닌 사람은?

- ① 난민과 빈곤 속에 사는 사람
- ② 여성, 장애인
- ③ 이주민, 노인
- ④ 성직자

10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시하신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의 세 가지 목표가 아닌 것은?

- ① 구조적인 시노드 정신으로의 전환
- ② 경청하는 교회
- ③ 친밀함의 교회
- ④ 열심히 봉사하는 신자들만의 교회

사순
제2주간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복음 말씀 | 마태 17,1-9

그 무렵 1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2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 3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4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5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6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7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두치오 디 부오닌체냐 캘리포니아. 1255 - 1319 변모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셔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눈처럼 희어집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며,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신비를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표징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올법과 예언서의 완성 이심을, 곧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그분 안에서 성취됨을 드러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음성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듣고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앞드리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가까이 오셔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현현(顯現)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 잡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며 두려움 대신 신뢰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변모의 사건을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변모 사건이 부활을 통해 완전히 이해될 사건임을 보여 줍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 안에서 바라보아야 할 부활의 희망을 기억하도록 초대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들어라”는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순종과 신뢰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최종 문서 제1부(13-48항)는 ‘시노달리타스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이고 영성적인 토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느님 백성의 성사적 뿌리’(21-27항)에서 세례성사는 시노달리타스의 원칙이며 교회 일치 토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의미와 차원들’(28-33항)에서는 그 의미를 통해 더욱더 참여적이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영적 쇄신과 구조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열망은 삼위일체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가 밑바탕이 되며,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가 동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회심’과 ‘개혁’의 길로 초대합니다. 이런 길을 걷기 위한 ‘시노달리타스 영성’(43-46항)은 성령의 활동에서 시작되어 하느님 말씀의 경청과 묵상과 침묵, 마음의 회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시노드 주체이고 영적인 존재인 교회는 인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다양성 안에서 ‘조화로서 일치’(34-42항)를 이룰 때 공동체적 회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적 ‘예언자적 목소리’(47항)를 내며 공동선을 위해 나아가도록 부릅니다.

회심하도록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13-14항)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요한 20.1-2).

13. 부활 아침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랑에 이끌려 가장 먼저 무덤에 간다.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가서 당신의 부활을 알리라고 그를 보내신다. 따라서 교회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들을 위한 사도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들의 상호 의존이 시노달리타스의 심장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14. 교회는 역사상 결정적인 사건, 곧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복음서들은 파스카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공허함, 두려움과 의심과 죄의 어

두움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 찾아 나서는 사람들은 실제로 누군가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며 찾고 있음을, 자신이 용서받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파견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하느님의 백성, 일치의 성사인 교회 (15-20항)

15.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서 하느님 백성의 정체성이 흘러나온다. 이 정체성은 성덕으로의 부르심으로,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모든 민족을 초대하는 선교에 의 파견으로 실현된다(마태 28,18-19 참조). 바로 그 세례에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며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교 생활은, 우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역동성을 불어넣어 주시는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 그 원천과 지평이 있다.
16.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느님 백성은 친교와 일치의 원천인 성찬례를 통하여 계속해서 자양분을 얻는다.
17. 하느님 백성은 시간 안에서 아직 순례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천상 교회와 친교를 이루고 있는, 시노달리타스와 사명의 역사적 공동체적 주체이다.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과 함께 걸어가며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대화하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을 알아보고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20. 교회의 소명과 예언자적 봉사(교회 헌장 12항 참조)는 온 인류를 자유와 친교 안에서 당신께 결합시키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을 증언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신비 안에서 이미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교회 헌장 3항)이고 “지상에서 이 나라의 싹과 시작”(교회 헌장 5항)인 교회는 온 인류와 함께 걸어가며 인간 존엄성, 공동선, 정의, 평화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하느님께서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1코린 15,28) 되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교회 헌장 5항) 갈망한다.

하느님 백성의 성사적 뿌리 (21-27항)

21. 교회의 시노드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소명들과 은사들과 직무들의 다양성은 하나의 뿌리를 지닌다는 사실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는 …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1코린 12,13). 세례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토대이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우리 삶의 바탕이 되고 우리가 형제자매로 함께 걸어가게 하는 은총이 담겨 있다.

22. 세례의 힘으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은 또한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도 참여한다. 세례 때 받은 성령의 도유는(1요한 2,20,27 참조) 모든 믿는 이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본능을 가지게 해 준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 감각’(sensus fidei)이라고 부른다.
23. 세례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 감각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세례성사는 시노달리타스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교회 일치의 토대이기도 하다.
24. 그리스도교 입문은 매우 다양한 소명과 교회 직무를 접하게 한다. 그러한 소명과 직무를 통하여 교회의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며 그들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는 교회의 자비로운 얼굴이 표현된다.
25. 견진성사는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들을 기쁘게 받아들여 겸손과 창의적 주도적으로 은사들을 활용하여 하느님 나라에 봉사하는 데에 헌신하도록 부름받았다.
26. 성찬례 거행 안에서 ‘교회의 일치가 드러나고 이룩된다’(일치 교령 2항 참조). 성령께서 이루시는 조화가 획일적이지 않고 교회의 모든 선물이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찬례보다 더 잘 보여 주는 것은 없다.
27. 성령께서는 성찬의 모임과 시노드 회합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이 이루는 일치를 보장하신다. 전례는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느님께서 주도하시는 계약에 응답하는 것이다. 시노드 모임도 시대의 징표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울려 퍼지는 같은 말씀을 경청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그 뜻을 식별하는 회중이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다.

시노달리타스의 의미와 차원들 (28-33항)

28. 시노달리타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인류와 더불어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사명을 지향하기에 교회적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함께 모이는 것, 상호 경청, 대화, 공동체적 식별, 성령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표현하는 동의 형성, 그리고 분화된 공동 책임성 안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수반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시노달리타스란 더 참여적이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곧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모든 남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영적 쇄신과 구조 개혁의 길이라 할 수 있다.
30.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삶의 세 가지 측면을 가리킨다.
 - 가)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삶과 사명을 특징짓는 고유한 방식이다. 이는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본질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자 주 예수님께서 소집하신 회중으로 모이는 것임을 드러내 준다.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성찬을 거

행하는 것, 친교의 형제애를 이루는 것, 그리고 하느님 백성 전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직무와 역할을 구별하며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하고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을 통하여 실현된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70항 가).

나) 둘째, “시노달리타스는, 이렇듯 다양한 차원의 유비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신학적 그리고 교회법적 의미에서 가장 특수하고 한정된 의미에서 교회 구조와 교회 절차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와 절차들은,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그 이끄심에 따라 걸어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도록 부름받은 교회의 권위 있는 식별을 위한 것이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70항 나).

다) 셋째, 시노달리타스는 “관할 권위로 그리고 교회 규율로 정해진 특정 절차에 따라서 교회가 소집되는 시노드 사건들이 정확히 일어나는 것을 지칭한다. 그 사건들은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참여하여, 로마 주교와 합의체적이고 교계적인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의 주재 아래, 개별 교회와 지역 교회와 보편 교회 차원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교회의 여정과 특정 문제들을 식별하고,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완수하려는 결정과 지침들을 취하려는 목적이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70항 다).



램브란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31. 친교의 개념은 삼위일체 하느님과 이루는 결합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간들 사이의 일치를 표현한다.
32. 시노달리타스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지향한다. 모든 은사와 직무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와 일치의 “볼 수 있는 성사”(교회 헌장 9항)가 되어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게 한다.

33. 시노달리타스는 “교계 직무 자체를 이해하는 가장 적합한 해석의 틀”(프란치스코, 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2015.10.17.)을 제공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목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따라서 시노달리타스는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온 교회를 회개와 개혁으로 초대한다.

조화로서의 일치 (34-42항)

38. 온 교회는 언제나 민족과 언어, 고유한 예식과 규율과 신학적 영적 유산을 지닌 교회들, 공동선에 봉사하는 소명과 은사와 직무에서 다수성을 지녀 왔다. 이러한 다양성의 일치는 머릿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조화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 다양성 속의 일치는 교회의 보편성이 명확히 알려 주는 것이다.
40. 맥락, 문화, 다양성과 그들의 상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며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또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의 가시적 일치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열쇠이다. 우리는 보편 교회의 임무, 곧 공동의 세례에 힘입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기도하신 제자들의 친교와 일치(요한 17,20-26 참조)를 함께 살아가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 일치 여정을 지속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임무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42. 종교와 문화의 다수성, 영적 신학적 전통의 다원성, 성령의 은사와 공동체 내 임무의 다채로움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편향된 성향을 인식하고 인정하여 자신을 중심에 두려는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 다른 관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초대이다.

시노달리타스 영성 (43-46항)

43. 시노달리타스 영성은 성령의 활동에서 생겨나고, 하느님 말씀의 경청과 관상과 침묵과 마음의 회심을 필요로 한다. 또한 시노달리타스 영성은 수덕, 겸손, 인내, 용서하고 용서받을 마음가짐을 요구한다.
44.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쇄신은 오직 은총의 우선성을 인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시노달리타스의 전망은 성전의 풍요로운 영적 유산을 걸어 올리면서도, 그 형태들, 곧 참여에 열린 기도, 함께 경험하는 식별, 나눔에서 생겨나 봉사로 빛을 발하는 선교 에너지의 형태들을 쇄신하는 데 기여한다.
45. 성령 안에서의 대화는 한계점은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묵시 2,7)을 듣고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풍성한 도구이다. 대화는 조화로운 방식으로 생각과 감정을 어우러지게 하여 공통의 활기 있는 세상을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대화 안에는 회심이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46. 시노드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교회와 사회 안에서 치유와 화해와 신뢰 회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맡겨진 존재라는 사실을 교회의 삶과 활동의 중심에 두도록 부름받았다. 이 심오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과오를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신성한 의무가 된다. 이 길을 계속 걸어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시노달리타스 쇄신의 열매이다.

사회적 예언으로서 시노달리타스 (47-48항)

47. 겸손하게 실천된 시노달리타스 방식은 교회가 오늘날의 세상에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불평등의 증대, 전통적인 통치 모델에 대한 환멸의 심화, 민주주의의 기능에 대한 실망,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경향의 증가, 인간과 창조 세계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장 모델의 지배, 대화보다는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유혹이 그 특징인 시대에 살고 있다. 진정한 시노달리타스 실천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배적 사고에 맞서 비판적 예언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발전시켜 현대 사회가 직면하여야 하는 많은 도전에 대한 답을 찾고 공동선을 건설하는 데 뚜렷한 기여를 할 수 있게 한다.
48. 시노달리타스 방식으로 관계를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조차 자주 침투하는 개인주의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심화된 고립감에 도전을 제기하고, 공동선을 위한 상호 돌봄과 상호 의존성과 공동 책임으로 우리를 부른다. 모든 이, 특히 가난한 이들을 경청하는 자세는 집중화된 권력이 가난한 이와 소외된 이와 소수자 그리고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세상과 뚜렷이 대조를 이룬다. 시노달리타스와 통합 생태학은 모두 관계들의 전망을 수용하고 유대들을 돌볼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현대 세계에서 교회의 사명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서로 일치하고 보완한다.

05 거룩한 변모 사건이 주는 신앙적 의미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 1 이미 당신의 첫 번째 수난 예고를 듣고 의기소침해진 제자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2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오심을 미리 맛보게 해준다.
-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나타나심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보여 준다.
- 4 그분의 신성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과 복종심을 갖게 한다.

06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의 목격자이며 ‘사도들을 위한 사도’로 불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13항)

- 1 베드로 2 유다 3 마리아 막달레나 4 토마스

07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에서 하느님 백성의 정체성이 흘러 나온다. 이 정체성은 성덕을 향한 부름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모든 민족들을 초대하는 선교를 위한 파견으로 실현된다. (15항)

08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삶의 세 가지 측면을 가리키는데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30항)

- 1 교회의 삶과 사명을 특징짓는 고유한 방식
- 2 교회 규율로 정해진 특정 절차에 따라서 교회가 소집되는 시노드 자체
- 3 신학적, 교회법적 의미에서 가장 특수하고 한정된 의미에서 교회 구조와 교회 절차들
- 4 모든 구성원이 복음화 사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09 시노달리타스의 실현 과정에서 공동체적 식별을 위해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묵시 2,7)을 듣고 식별하는 도구는 무엇인가? (45항)

- ① 성령 안에서 대화
- ② 복음나누기 7단계
- ③ 관상 기도
- ④ 이냐시오 영성

10 시노달리타스 양식을 통하여 교회는 오늘날 세상에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이것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 (47-48항)

- ① 상호 돌봄과 상호 의존성과 공동 책임으로 나아가야 한다.
- ②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화보다는 힘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 ③ 개인주의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심화된 고립감에 도전을 제기해야 한다.
- ④ 공동선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비판적 예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순
제3주간

숫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

복음 말씀 | 요한 4,5-42

그때에 5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울에 이르셨다. 6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7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



발트펠러, 우물가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게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울에 가 있었다.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10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12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13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15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6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17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18 너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대로 말하였다.” 19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20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21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22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24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25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26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27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28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29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30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 왔다. 31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32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33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34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35 너희는 ‘아직도 녁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때가 되었다. 이미 36 수확하는 이가 샷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37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38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39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40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들을 머무르셨다. 41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42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의 시카르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민족이라 여기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경계를 먼저 허무시고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에게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과 지금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과 그녀의 삶에 깊은 상처와 외로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피하여 물을 길으러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渴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알려주십니다.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주님을 몰라보고 ‘선생님’, ‘예언자’로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마침내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우고,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복음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상처 많은 삶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쁨과 희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합시다.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시노드 영성은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자 모든 활력을 발산하는 원천이 됩니다. 최종 문서 제2부는 교회가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부터 인종차별, 장애인 차별, 소수자의 권리 침해 등의 관계에서 시작된 문제들과 교회의 삶과 사명 속 다양한 카리스마와 사명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주목합니다. 관계들의 회심(49항)부터 새로운 관계들(50-52항),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성품 직무자들 사이의 협력(74항)까지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함께해야(78항) 함을 복음적 시선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계들의 회심 (49항)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래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요한 21,2-3).

49. 티베리아스 호수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다.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가려고 배와 그물을 버렸다. 시노드 여정도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베드로 후계자로 초대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그와 함께 그의 뒤를 따라 길을 나섰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며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새롭게 해야 한다.

새로운 관계들 (50-52항)

50. 시노드 여정 내내 세계 각지에서 관계들을 복돋을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요청이 있었다. 곧 주님과 맺는 관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사회 집단들 사이의 관계, 종교 간 관계, 피조물과 이루는 관계를 증진하는 교회를 요청하였다.
51.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마다를 만나려 오시는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52.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

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7).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러한 근원적 다름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시노드 과정에서 모든 지역과 대륙의 여성들이 평신도든 축성 생활자든 거듭 표명한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Duccio Appearance_on_Lake_Tiberias

맥락의 다양성 안에서 (53-56항)

53. 주 예수님 안에서 관계들을 쇄신하라는 부르심은 그분 제자들이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맥락들 안에서 울려 퍼진다. 그러나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왜곡되고 때로는 복음의 논리에 반대되는 관계 논리를 표방하는 표지들이 있다.
55.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악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 교회는 성직자나 교회 직분을 맡은 이들이 저지르는 온갖 학대의 피해자와 생존자의 목소리에 특별한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경청해야 한다.
56. 배척과 소외로 고통받는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일 때, 교회는 이 상처받은 관계들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자기 사명의 일부임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된다.

사명을 위한 은사, 성소, 직무 (57-67항)

58.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살아가고 일하는 맥락 안에서 사명의 필요성에 응답하고, 이로써 고유한 선물들을 부어 주시는 성령의 자유를 드러낸다. 역량에 따라 복음의 영감을 받은 문화의 발전에서 세상의 길들을 걸어가고 삶의 터전 안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성령의 선물들로 뒷받침받는다.
59.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방치하지 말고, 파견받았으며 지지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 달라고 교회에 요청한다.

- 60. 세례의 힘으로 남성과 여성은 하느님 백성 안에서 동등한 품위를 누린다. 이번 시노드 총회는 현행법에서 이미 규정된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모든 기회가 특히 아직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충분히 보장되도록 촉구한다.
- 61.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62. 젊은이들도 시노드적 교회 쇄신에 이바지할 수 있다.
- 63. 장애인들의 사도적 능력을 인정한다. 우리는 그들이 지니는 참으로 풍요로운 인간성에서 비롯되는 기여를 소중히 여기고자 한다.
- 64. 혼인성사는 가정생활과 교회 건설과 사회 안에서 임무에 관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한다. 혼인과 성 윤리에 관한 교회의 성전과 가르침을 자신들의 삶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이에 충실하려는 선택으로 홀로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 대한 친밀감과 지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였다.
- 65. 수 세기에 걸쳐 영적 선물들은 축성 생활의 다양한 표현들로 생겨나게 하였다. 수도회 (institutum, ordo, congregatio, societas), 사도 생활단, 재속 수도회는 단체와 운동, 새로운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시노달리타스가 성장하는 데에 특별한 공헌을 하고 있다.
- 67. 시노드 총회는 신학이 신앙의 이해와 식별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제공해온 기여를 인정하였다. 신학 기관들이 지역 교회들 안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심화하며 양성에 동반하도록 하는 연구를 계속할 것을 요청한다.

조화에 봉사하는 성품 직무 (68항)

- 68. 주교와 신부와 부제의 직무는 교회의 모든 직무와 마찬가지로 복음 선포와 교회 공동체의 건설에 봉사한다.

주교의 직무 : 성령의 선물들을 일치 안에 모으기 (69-71항)

- 69. 주교는 자신의 교회 안에서 이루는 일치의 가시적인 근원이자 온 교회와 이루는 친교의 끈으로서 한 교회를 다스릴 임무를 지닌다.

주교와 함께 : 신부들과 부제들 (72-73항)

- 72. 신부들은 사제적 형제애를 살아가며 사목적 섬김 안에서 함께 걸어가도록 부름받았다. 교구 신부

들은 다른 형제 사제들이 고유한 전통과 영적 풍요로움을 지닌 구체적인 교구의 역사 안에 포함되도록 도와준다. 그리하여 사제단 안에서도 선교 사명을 위한 참된 선물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73. 부제의 역할은 각 지역 교회의 필요에 따라, 특히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며 사명을 수행하는 자비로운 교회의 모습 안에서 모든 이가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일깨우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성품 직무자들 사이의 협력 (74항)

74. 시노드 경험은 주교, 신부, 부제가 직무 수행에서 공동 책임을 재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고 하느님 백성을 섬기기 위하여 부여된 교회 권위를 왜곡하는 성직 주의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명을 위하여 함께 (75-78항)

75. 교회는 공동체와 사명의 요구에 응답하여 교회 역사의 흐름 안에서 성품 직무와는 구분되는 몇몇 직무들을 탄생시켰다. 직무의 수여는 한 사람을 형성하고 그가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준성사이다.
77. 협력과 분화된 공동 책임의 정신으로, 우리 시대의 사목적 필요에 응답하여 봉사와 직무의 추가적 행태도 탐구하면서 남녀 평신도들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신앙 배움터 | 제3부 “그물을 던져라”



시노달리타스 실현에서 핵심은 상호 경청과 대화, 공동체적 식별에 있습니다. 제3부는 익숙함을 넘어선 새로운 구조적 방식으로 그물을 던져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한 교회적 식별(81-86항)과 이를 위한 투명성, 책임감 있는 결정 과정(87-102항)에 이르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식별은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해 세례받은 모든 이에게 전해지는 ‘신앙 감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은 하느님 백성 가운데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기준으로 함께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과정들의 회심 (79-80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었다”(요한 21,5-6).

79. 고기잡이는 아무 결실이 없었고 물으로 되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권위 있는 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제자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어떤 일을 하도록 초대하는 목소리, 가능성을 일러 주는 목소리다. 우리는 이러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그 말씀에 응답하기 위하여 실천해야 할 것은 교회적 식별, 정성을 기울이는 결정 과정,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설명하고 내려진 결정의 결과를 평가하는 노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명을 위한 교회적 식별 (81-86항)

82. 교회적 식별은 조직을 운영하는 기술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영적 실천이다. 모든 이의 목소리를 경청할수록 식별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85. 참으로 ‘교회적’ 식별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에 합당한 도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먼저, 부분적 또는 근본주의적 접근을 피하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적절한 성경 주석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 교부들, 성전, 권위 수준이 다양한 교도권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결정에 이르는 과정의 연결 (87-94항)

87.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들에 하느님 백성 전체가 최대한 폭넓게 참여하도록 복돋는 것이다.
89.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공동 결정을 위한 저마다의 능력과 재능을 소중히 여기면서 존중받아야 한다.
90. 그들의 역할 증진을 위해서는 결정에 이르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관할 권위의 책임이다.
91. 교회 안에서 권위의 행사는 독단적인 뜻을 강요하는 데에 있지 않다. 권위는 다양한 행사 방식

을 통하여 언제나 친교에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에 봉사한다.

투명성, 책임감 있는 설명, 평가 (95-102항)

95.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결정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결정 과정은 복음적 기준으로 복돋워진 투명성의 정신으로 책임감 있게 설명하고 평가하는 실천을 수반하고 포함한다.
97. 투명성의 자세는 관계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노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신뢰와 신빙성의 보루가 된다. 신뢰가 무너지면 가장 약하고 힘없는 이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는 미성년자들과 취약한 이들의 보호에서 특히 중요하다.
99. 시노드 교회가 환대하는 교회가 되려면, 책임감 있는 설명이 모든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100. 모든 종류의 직무적 책임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구조와 형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평가는 오히려 직무적 책임을 맡은 이들의 행동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언제나 성령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도우며, 사명에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눈여겨보도록 해 준다.

시노달리타스와 참여 기구들 (103-108항)

103. 라틴 교회의 참여 기구들로는 교구 대의원 회의(교회법, 제466조 참조), 사제 평의회(교회법, 제500조 참조), 교구 사목 평의회(교회법, 제514조 제1항 참조), 본당 사목 평의회(교회법, 제536조 참조), 교구와 본당의 재무 평의회(교회법, 제493조와 제537조 참조)가 있다.
108. 시노드 총회는 주교가 특히 지역 교회의 삶과 사명에 관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 교구 시노드와 동방 교구 총회를 자신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에게서 정기적으로 자문을 듣는 기관으로 더욱 존중하고, 경청과 기도, 식별의 자리로 더욱 활용하도록 제안한다. 따라서 각 지역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교구 시노드와 동방 교구 총회가 너무 드물게 열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열리도록 규정하여 이 문제에 관한 교회법 조항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사순 제3주간 | 판공문제

01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시간은 언제였는가?

- ① 아침
- ② 낮 12시쯤
- ③ 해 질 무렵
- ④ 밤

02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 4,14)에서 예수님께서 주실 물의 의미로 옳은 것은?

- 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 ②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는 좋은 수단이다.
- ③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요구할 권리이다.
- ④ 주변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03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마리아 여인의 시각을 사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예언자 → 그리스도(메시아) → 선생님
- ② 선생님 → 예언자 → 그리스도(메시아)
- ③ 예언자 → 선생님 → 그리스도(메시아)
- ④ 그리스도(메시아) → 선생님 → 예언자

04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예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과 ()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요한 4,24).

05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였다.
- ②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 ③ 예수님께서서는 참으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였다.
- ④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하였다.

06 성령의 고유한 선물은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58항)

- ①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만
- ② 성직자에게만
- ③ 세례받은 모든 사람에게
- ④ 기도에만 전념하는 사람에게

07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7)의 의미는 무엇인가? (52항)

- ① 하느님의 피조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불평등하지 않고 동등한 품위를 가진다.
- ② 특별한 뜻없이 그냥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 ③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었다.
- ④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라고 창조하셨다.



사순 제3주간 | 판공문제

08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요한 21,6)는 예수님께서 시노드 과정의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와 관계 없는 것은? (79항)

- ① 제자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을 하도록 초대하는 말씀
- ② 선교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 ③ 제자들이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보지 못하는 무지함을 일러 주는 말씀
- ④ 고기 잡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말씀

09 다음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99항)

“시노드 교회가 환대하는 교회가 되려면, ()있는 ()
이 모든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10 103항에 언급되어 있는 시노달리타스의 참여 기구가 아닌 것은?

- ① 교구 대의원 회의
- ② 사제 평의회
- ③ 종교 연합회
- ④ 교구와 본당의 재무 평의회

사순
제4주간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복음 말씀 | 요한 9,1-41

그때에 **1**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2**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이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3**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 **4**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5**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6**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



Duccio di Buoninsegna ca. 1255 - 1319 The Healing of a Blind Man

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7**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8**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9** 어떤 이들은 “그 사람ियो.”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यो.”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10**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11**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12**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3**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14**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였다. **15**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6**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

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17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18 유대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19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20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21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22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23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24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25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26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27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28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29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30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31 하느님께서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 주십니다. 32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 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33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34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35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36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37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나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38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39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40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41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 주심으로 써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이 고통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고통을 죄의 결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일이 그 사람 안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한가운데에도 하느님께서 부재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지만, 눈먼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치유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정임을 보여 줍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빛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치유된 이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앞세워 기적을 부정하고, 점점 더 마음을 닫아 갑니다. 마침내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증언하자, 그는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치유 받은 이는 공동체에서 배척당하지만,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하던 이들은 오히려 더 깊은 어둠에 머물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쫓겨난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드러내시며, 이제 그의 믿음의 눈까지 열어 주십니다. 그는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경배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진정한 빛의 여정이,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믿음 안에서 완성됨을 보여 줍니다.



제4부는 장소에 기반한 전통적 유대 관계를 넘어, 다양한 인간 경험에 기초한 새로운 사목 형태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110항). 특히 도시화, 이주민 증가, 디지털 문화의 확산 등 오늘날의 특징적 현상을 예로 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망이 시노드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에게 새로운 과제이자 동시에 복음 선포의 기회가 됨을 밝힙니다(111~113항). 더불어 다양한 지역 교회들 간의 ‘선물의 교환’은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드러내는 표징이며(120항), 세계주교시노드는 교회 전체 차원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할 수 있는 탁월한 기회임을 강조합니다(136항).

유대들의 회심 (109항)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물에서 백 미터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물으로 끌어 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선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요한 21,8,11).

109. 부활하신 분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니 아주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었다. 모든 이가 그물을 끌어오려고 힘을 합치고, 베드로는 특별한 역할을 맡는다. 복음에서 고기잡이는 함께 이루어 가는 행위이다. 저마다 다르지만 다른 이들의 임무와 조화를 이루는 특정한 임무를 지닌다. 이것이 바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이다. 그 교회는 친교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유대들과, 각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자리들로 이루어진다.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순례하며 살아가는 장소에 대한 경험이 변화하는 이 시대, 선물 교환은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주교들 사이에 그리고 로마 주교와 맺는 친교 안에서 주교들의 직무로 유지되어 우리를 일치시키는 유대의 관계망도 새로운 형태로 엮어져야 한다.

뿌리내리고 순례하는 (110-119항)

110. 복음 선포는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을 일깨워 특정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한다. 교회는 구체적인 지역, 곧 구원자이신 하느님과 만나는 공동의 경험이 생겨나는 구체적인 시공간 안에

뿌리내리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 교회의 지역 차원은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뿌리내리고 있는 신앙 표현들의 풍부한 다양성을 보전하고, 교회들의 친교는 유일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친교를 드러낸다. 따라서 시노달리타스 회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교회와 맺는 인격적인 관계 안



|| Tintoretto 1518 - 1594 Christ at the Sea of Galilee

에 뿌리내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생겨나는 첫 번째 ‘자리’인 마음의 터를 넓히라고 모든 이를 초대한다.

111. 뿌리내림의 경험은, 장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는 근본적인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소의 개념은 더 이상 단순히 지리적 공간적 용어로 이해될 수 없고, 우리 시대에는 그 뿌리가 이전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유연해진 관계 망과 문화 소속성에 깊이 관련된다. 도시화는 이러한 변화의 근본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오늘날 지구촌 인구의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한다. 전통적인 지역적 유대의 의미가 바뀌면서 본당과 교구의 경계도 덜 분명해졌다. 교회는 이러한 현실 안에 살아가며 공동체 생활을 다시 구축하고 익명의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고 형제적 관계를 맺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여전히 유효한 구조들을 활용하는 것 외에도 사목의 새로운 형태들을 탐구하고 구체적인 돌봄의 길을 찾는 선교적 창의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외되고 배재된 지역들을 간과하지 말고 여전히 특별한 사목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삶의 주변부인 농촌 현실 등에 대하여 그러해야 한다.
112. 다양한 이유로 인간의 이동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특징이다. 난민과 이주민은 종종 활기찬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의 신앙 실천을 통해서도 그들의 정착지를 다문화 지역이 되게 한다.
113.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디지털 문화의 확산도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고, 믿음을 포함하여 그들의 일상 활동,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계 망이 제공하는 가능성이 관계와 유대와 경계를 탈바꿈시키는 현실이다. 특히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디지털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단체는 소속감의 유대를 이룩하고 만남과 대화를 북돋우며 또래 학습을 장려하고 시노달리타스 방식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법을 성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114.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발전은 교회가 자신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교회의 ‘지역적’ 차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그 구조적 형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인 지리적 문화적 상황에 뿌리내린다는 것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또한 ‘장소’를 인간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현실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16. 지역 교회는 곧 교구로 이해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세례 받은 이들의 친교가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근본적인 자리이다. 각 지역 교회는 내적인 결속을 이루는 동시에 다른 지역 교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117. 역사를 통하여 전수된 지역 교회의 기본 단위 가운데 하나가 본당이다. 본당 공동체는 선택에 기반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라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세대, 직업, 지리적 출신, 사회 계층, 생활 여건의 사람들이 모인다. 선교의 새로운 요구에 응답하기 위하여 본당 공동체는 인간의 이동성과 그 삶이 전개되는 ‘실존의 영역’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목 활동을 찾도록 부름받았다. 특히 그리스도교 입문을 장려하고 동반과 양성을 통하여 개개인이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자신의 지상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당은 자신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지향하고, 여러 방식으로 살아가며 일터에서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활동 안에서 신앙을 증언하는 많은 사람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118.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국내외 차원에서 다양한 장소와 공간을 이어 주는 축성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단체와 운동, 새로운 공동체의 정성과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 많은 개인과 사립 단체 활동과 더불어 그들의 활동은 흔히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곧, 병원, 교도소, 양로원, 이주민들과 미성년자들과 소외된 이들과 폭력의 희생자들을 위한 쉼터, 젊은이들과 가정들의 만남의 자리인 교육과 양성 센터와 학교와 대학교, 공존의 새로운 형태를 상상하고 구축하는 곳인 문화와 정치와 온전한 인간 발전의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회합과 식별의 장소이자 온 교회와 관련되고 그 길을 안내하는 ‘저 너머’에 대한 예언의 장소인 수도원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본다. 수도회는 시노달리타스의 역동성에 참여하여 지역 교회와 함께 상승효과를 발휘하며 활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선물들의 교환 (120-123항)

120. 은사와 직무의 다양성 안에서, 그리고 교회들 사이 선물들의 교환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향한 인류의 여정을 성령의 숨결을 통하여 동반하고 지지하며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현존한다는

효과적인 표징이다. 선물들의 교환은 교회 생활의 모든 차원을 포함한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베드 4,10)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고는 분명히 각 지역 교회에 적용될 수 있다.

- 121. 교회는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교회의 보편적 일치 안에서 만남의 문화, 사회 정의, 소외 계층의 포용, 민족 간 형제애, 공동의 집 돌봄에 관한 예언을 순환시키고 촉진하는 관계망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예언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각 교회는 온정주의나 복지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서로 다른 정체성을 존중하고 건강한 상호성을 증진하면서 연대의 정신으로 자산을 나누어야 한다.
- 122. 그리스도교의 서로 다른 전통은 바로 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환경과 사회적 도전의 다양성 안에서 하나의 복음을 육화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수 세기에 걸쳐 성덕과 애덕, 영성과 신학, 사회적 문화적 연대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왔다. 이러한 소중한 자산들을 이제 보화로 삼을 때가 왔다. 곧 이 자산들을 자신만의 독점적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아낌없이, 진심으로, 편견 없이, 주님께 감사하며,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 선물해야 한다.

일치를 위한 유대: 주교회이들과 교회 회의들 (124-129항)

- 125. 주교회회는 교회 간 친교를 촉진하고 사목 활동의 필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주교들의 단체성을 표현하고 실현한다. 주교회회는 교회들 사이에 유대를 형성하고 체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표현을 다양한 문화에 적응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도구이다. 또한 하느님 백성 전체의 참여를 통하여 시노달리타스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마 주교의 봉사 (130-139항)

- 136. 세계주교시노드는 교회 전체 차원에서 시노달리타스와 단체성을 실현하는 탁월한 기회가 된다. 거룩한 하느님 백성 전체,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을 맡은 주교들, 그리고 교회 일치의 근원인 로마 주교는 저마다 고유한 역할에 따라 시노드 과정에 실제로 온전히 참여한다. 이러한 참여는 로마 주교를 중심으로 모이는 시노드 총회에서 드러나고, 그 구성은 교회의 보편성을 보여 준다. 세계주교시노드의 이러한 정체성을 심화하면서 시노드 과정과 총회에서 모든 사람(거룩한 하느님 백성)의 참여, 몇몇 사람(주교단)의 직무, 그리고 한 사람(베드로의 후계자)의 주재 사이의 조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실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앙 배움터 | 제5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5부는 교회의 선교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시노달리타스에 기반한 제자 양성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합니다(140~147항). 특히 디지털 문화가 지닌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새로운 선교의 장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고(149항), 미성년자와 취약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책임임을 환기합니다(150항). 아울러 정의롭고 형제애가 넘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 교리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할 것과, 통합적 생태를 구현하기 위한 교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합니다(151항).

선교하는 제자들의 백성으로 양성하기 (140-151항)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1-22).

140. 파스카 저녁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평화를 구원의 선물로 제자들에게 주시며 당신 사명에 그들을 참여시키신다. 그분의 평화는 존재의 충만이며 하느님과 형제자매들과 피조물과의 화합이다.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141.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든 이에게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고 시노달리타스의 실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성이 필요하다. 곧,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느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상하며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분을 알아뵈도록 양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시노달리타스 양식을 양성하는 것은 세례로 받은 선물들이 모두의 선익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할 탈렌트라는 의식을 증진할 것이다.
142. 선교하는 제자들의 양성은 그리스도교 입문에서 시작하고 그 안에 뿌리를 둔다. 그런데 주님의 선교하는 제자가 되는 것은 단 한 번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속적인 회심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기까지”(에페 4,13)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령의 선물들에 마음을 열어 살아 있고 기쁜 신앙을 증거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하기에 주일 성찬례 거행이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노달리타스가 지닌 세

개의 축인 친교와 사명과 참여의 선물은 성체성사가 거행될 때마다 실현되고 새로워진다.

143. 양성은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방성과 만남, 나눔과 협력, 공동 성찰과 식별, 구체적인 체험의 신학적 이해 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하기에 양성은 지성적, 정서적, 관계적, 영성적 측면 등 전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구체적이고 적절한 체험이 동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녀 평신도와 축성 생활자, 수품 직무자와 수품 직무 후보자가 양성에 함께 참여하여 상호 이해와 존중, 상호 협력의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Rembrandt Harmensz. van Rijn 1606 - 1669
Passion series: The Resurrection

144. 교회는 선교하는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많은 장소와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다. 가정, 소공동체, 본당, 교회 단체, 신학교, 수도 공동체, 교육 기관은 물론, 소외된 이들과 함께 봉사하고 일하는 장소 그리고 선교와 자원봉사 체험 등이 양성의 장소와 자원이 된다. 이들 영역 안에서 청년들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서로 자주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나고 있는데,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공동체는 제자 직무를 교육하고 증언으로 동반하는 역량을 드러낸다. 교회 안에서 단순히 양성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이가 양성의 능동적인 주체이며 다른 이에게 내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145. 시노달리타스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양성 활동들 가운데 교리 교육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는 자비의 표징 안에서 교리 교육을 실시하고, 각자의 체험에 알맞게 교리 교육을 수행하며 실존의 주변부까지 교리 교육을 전하되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교리 교육은 우리 시대의 남녀들과 ‘대화하는 실험실’이 되어(『교리 교육 지침』, 54항 참조) 그들이 추구하는 의미에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147. 세례 받은 모든 이를 위하여 시노드 정신으로 함께하는 양성은, 여러 개별 직무 및 삶의 다양한 형태에 필요한 특정한 양성을 이해하고 실행할 지평을 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양성은 다양한 소명들 사이의 선물 교환(친교)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봉사의 관점(사명)에서, 그리고 분화된 공동 책임에 대한 참여와 교육 방식(참여)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149. 하느님 백성을 시노달리타스로 양성하기 위한 몇 가지 특정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영

역은, 디지털 환경이 학습 과정, 집중력,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인식, 대인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문화는 우리 시대 문화 안에서 교회의 증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원이자 새로운 선교의 장이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교 메시지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계망 안에 전달되고 그 내용이 이념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커다란 잠재력을 가졌지만, 집단 따돌림, 허위 정보, 성적 착취와 중독 등을 통하여 피해와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교회의 교육 기관은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온라인상에서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150.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모든 교회 환경에서 보호 문화를 증진하여 미성년자들과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더 안전한 공동체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이웃이 되고자 구체적인 선택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모든 이를 위한 다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1. 교회의 사회 교리, 평화와 정의를 위한 헌신, 공동의 집 돌보기, 그리고 문화 간 종교 간 대화에 관한 주제도 하느님 백성에게 널리 전파하여, 선교하는 제자들의 행동이 더욱 정의롭고 형제애가 넘치는 세상을 건설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명과 인권의 수호, 사회의 올바른 질서, 노동의 존엄성과 공정하고 연대하는 경제, 통합적인 생태를 위한 노력은 교회 가 역사 안에서 살고 구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복음화 사명의 일부이다.

결론 : 모든 민족들을 위한 잔치 (152-155항)

154. 우리는 시노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구원은 관계를 통하여 전해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구원은 함께 살아가며 함께 증언하는 것이다. 역사는 전쟁과 권력 투쟁과 수많은 불의와 억압으로 비참하게 얼룩져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관계와 참된 유대를 향한 갈망을 심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창조 세계 자체가 바로 일치와 나눔, 서로 다른 삶의 형태 간 다양성과 어우러짐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은 조화에서 나오고 조화를 향해 나아가며, 심지어 악으로 짓밟혀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도 그렇다. 시노달리타스의 궁극적 의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시고자 당신 밖으로 나오신 사랑의 조화이신 그분을 증언하도록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의 성소와 은사와 직무가 서로 어우러져 시노달리타스 방식으로 걸어가고, 모든 이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기 위하여 만나러 갈 때, 우리는 하느님과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과 함께 구원의 친교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나눔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생명의 잔치를 이미 체험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순 제4주간 | 판공문제

01 복음에서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예언자 →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 → 주님 → 예수님이라는 분
- ② 예수님이라는 분 → 예언자 →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 → 주님
- ③ 예수님이라는 분 →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 → 주님 → 예언자
- ④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 → 예언자 → 예수님이라는 분 → 주님

02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치유 과정입니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요한 9,5-7).

03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태생 소경을 치유해 주신 날은 어떤 날인가?

- ① 초막절
- ② 오순절
- ③ 안식일
- ④ 속죄일

04 전례 중에 ‘그리스도, 우리의 빛’을 노래하는 ‘빛의 예식’을 거행하는 때는 언제인가?

- ① 예수 성탄 대축일
- ② 그리스도 왕 대축일
- ③ 파스카 성야
- ④ 주님 승천 대축일



사순 제4주간 | 판공문제

05 오늘 복음에서 태생 소경의 치유 이야기가 전해주는 기적과 믿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못사람이 당신을 믿도록 권유한다.
- ②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근본적인 힘은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
- ③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의 눈까지 뜨게 된 것이다.
- ④ 예수님을 믿지 못한 바리사이들은 육체의 눈까지 멀게 되었다.

06 뿌리내리고 순례하는 교회의 시노드적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0-111항)

- ① 시노달리타스 회심은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생겨나는 첫 번째 '자리'인 마음의 터를 넓히라고 모든 이를 초대한다.
- ② 장소의 개념은 우리 시대에는 이전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유연해진 관계망과 문화 소속성에 깊이 관련한다.
- ③ 전통적인 지역적 유대의 의미가 바뀌면서 본당과 교구의 경계도 덜 분명해졌다.
- ④ 구체적인 돌봄의 길을 찾는 선교적 창의성이 필요하지만, 농촌 등 소외되고 배제된 지역들을 간과하여도 된다.

07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 본당은 일터에서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활동 안에서 신앙을 () 하는 많은 사람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117항)
- 시노달리타스의 궁극적 의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시고자 당신 밖으로 나오신 사랑의 조화이신 그분을 () 하도록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154항)

① 증언

② 구원

③ 기념

④ 명세

08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주님의 선교하는 제자가 되는 것은 단 한 번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속적인 ()과 “그리스도의 총만한 경지에 다다르기까지”(에페 4,13)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의 선물들에 마음을 열어 살아 있고 기쁜 신앙을 증거할 때에만 가능하다. (142항)

- ① 회심 - 성령
- ② 회심 - 율법
- ③ 노력 - 이웃
- ④ 희망 - 결심

09 하느님 백성을 시노달리타스로 양성하기 위한 몇 가지 특정 영역 중 ‘디지털 환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에 적합하지 않은 말은? (149항)

디지털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커다란 잠재력을 가졌지만, () 등을 통하여 피해와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교회의 교육 기관은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온라인상에서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 ① 집단 따돌림
- ② 객관적 정보
- ③ 성적 착취
- ④ 중독

10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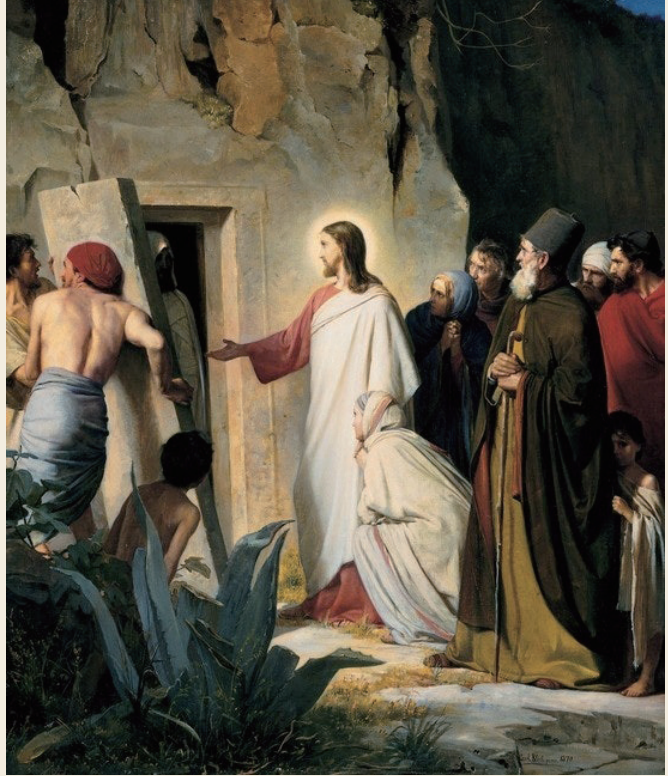
- ① 생명과 인권의 수호를 위한 노력
- ② 사회의 올바른 질서를 위한 노력
- ③ 통합적인 생태 구축을 위한 노력
- ④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에 대한 무관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복음 말씀 | 요한 11,1-45

그때에 1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2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 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3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5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6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7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열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10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11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2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13 예수님께서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14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로는 죽었다. 15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16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17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18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열 다섯 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20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21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23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24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25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26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27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28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

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
 다. 29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
 어나 예수님께 갔다. 30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
 다.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
 았던 것이다. 32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
 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
 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복
 받치고 산란해지셨다. 34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
 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5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36 그러자 유대인
 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37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38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39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40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41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
 셧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42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
 다.” 43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44 그러자 죽
 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5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
 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Carl_Heinrich_Bloch Jesus_Raises_Lazarus_from_the_Dead



말씀 나누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라자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곧바로 베타니아로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병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침묵 속에서, 하느님은 더 깊은 생명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긴 마르타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며, 마리아와 마르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라자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는 죽음과 고통의 현실을 함께 짚어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 줍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그분 안에 생명과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십니다.

부활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삶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성사를 통해 새 생명을 받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은총 속에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생명과 희망이 흘러가기를 바라봅니다.



신앙 배움터 | 성령안에서 대화

시노드 최종 문서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대화’는 교회 생활에서 실제로 그 방향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자 영적 도구입니다. 시노드 여정의 핵심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교회의 공동체적 식별 과정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대화’는 모든 구성원이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성령의 말씀을 공동으로 식별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대화’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일치를 이루고, 사랑과 진리를 바탕으로 교회를 쇠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1. 성령 안에서 대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로마 12,3).

‘성령 안에서 대화(영적 대화, Spiritual Conversation)’는 기도와 경청을 통해 성령의 말씀을 식별하며,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식별의 대화 방식입니다. 이 영적 대화 방식은 성령 안에서 하는 대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진실하게 나누는 대화입니다.



Jean Fouquet—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안내 또는 규칙을 따르는’ 영적 대화는 1977년 캐나다에서 이를 개발하고 보급한 ISECP(이나시오 영성운동)가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몇 년 뒤 벨기에의 또 다른 예수회 그룹은 ESDAC(공동사도 식별을 위한 영신수련)를 결성하여 ISECP와 연속적으로 공동사도식별을 지향하는 영적 대화의 양식을 개발하였습니다.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는 ESDAC가 써온 방식들과 더불어 최근 호주 전국 공의회(Plenary Council), 캐나다와 미국 지역 등에서 집단과 단체를 위해 사용하던 이나시오 영신수련 방법 등을 더욱 발전시켜 ‘성령 안에서 대화’를 대화의 방법론으로 채택하였습니다.¹⁾

‘성령 안에서 대화’는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참석자들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의 중심은 하느님이시며, 참여자들은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화의 신학적 바탕은 ‘신앙 감각’입니다. 이는 올바른 그리스도교 교리와 실천을 파악하고 그에 동의하며, 잘못된 것을 배척하도록 해주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본능을 의미합니다.²⁾ 대화 참여자들이 이러한 감각에 의지하고자 노력한다면, 서로를 경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나눔으로써

공동체 차원에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복음의 진리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대화’가 진정한 교회 쇄신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깊은 영성 기초와 성령에 대한 믿음, 기도의 생활과 말씀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성령 안에서 대화는 오히려 서로에 대한 다름과 자기의 고집만을 확인하는 불편한 자리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목적은 내부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아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2. ‘성령 안에서 대화’의 구체적 방법

1) 시작 기도

▶ 시작 기도 후 서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합니다.

2) 개인적 준비

성부께 자신을 맡겨 드리고, 주님이신 예수님과 기도 안에서 대화하며, 성령께 귀 기울이면서, 각자 식별하도록 부름받은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준비합니다.

☞ 이번 주제는 ○○○입니다.

▶ 진행자는 참가자 중 한 명에게 내용을 낭독하도록 요청합니다. 참가자들은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성찰을 떠올리고 정리합니다.

☞ 이 주제와 관련하여 나의 신앙 체험 안에서 어떤 울림이 있는지 3분간 묵상하겠습니다.

3) 말하고 듣기(나눔 1)

각자 자신의 경험과 기도에 대해 발언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 각자 개인 성찰의 내용을 3분을 넘지 않게 나눕니다. 자신이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 3 명이 발표하면 2 분간 묵상합니다. 이어서 3 명씩 발표할 때마다 2 분간 묵상합니다.

(3 명 발표 - 2 분 묵상 - 3 명 발표 - 2 분 묵상 - 3 명 발표)

4) 침묵과 기도(1)

☞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3 분간 성찰하겠습니다.

5) 다른 이들과 하느님께 공간을 내어주기(나눔 2)

다른 이들이 말한 것에서 각자 가장 깊이 공감한 것 또는 저항감을 일으킨 것을 나누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맡깁니다. “우리가 들을 때 가슴안에서 나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 나눔 대화에서 들은 내용 중에서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2분 이내로 나눕니다.

▶ 3 명이 발표하면 2 분간 묵상합니다. 이어서 3 명씩 발표할 때마다 2 분간 묵상합니다.

(3 명 발표 - 2 분 묵상 - 3 명 발표 - 2 분 묵상 - 3 명 발표)

6) 침묵과 기도(2)

☞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 3분간 성찰하겠습니다.

7) 함께 이룩하기(나눔 3)

성령 안에서 대화의 열매를 식별하고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앞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대화합니다. 즉 통찰과 수렴된 것을 인식하고, 이견과 방해 요소, 새로운 질문을 확인하며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이 작업 결과가 자신을 대표한다고 모두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떤 단계로 함께 가도록 부르고 계신가?”

☞ 오늘 성령 안에서 대화 모임에 대한 소감과 제안을 각자 2 분 이내로 나누겠습니다.

▶ 3 명이 발표하면 2 분간 묵상합니다. 이어서 3 명씩 발표할 때마다 2 분간 묵상합니다.

(3 명 발표 - 2 분 묵상 - 3 명 발표 - 2 분 묵상 - 3 명 발표)

8) 마침 기도

▶ 주제별로 준비된 ‘마침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3. 경청과 대화를 위한 자세

※ 시노드 「편람」에서 제시하는 ‘경청과 대화를 위한 자세’

01. 이 모임은 토론이나 논쟁의 시간이 아니라 영성적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청하고,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에 집중합니다.
02. 이 모임에서 성령께서 함께하시도록 묵상과 침묵의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자 이야기하는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03. 말하는 용기와 더불어 경청하는 용기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04. 말을 할 때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 등을 가능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05. 들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하는 내용뿐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알아차리도록 노력합니다.
06.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차례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생각하기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집중합니다.
07.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읍니다. 그가 하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의 목소리의 톤과 느낌까지 공감하고자 노력합니다.
08. 다른 이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닙니다.
09.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에 안주하려는 마음과 편안함을 찾는 태도나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읍니다.
10. 함께 배우며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11. 하느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대신 우리 스스로 이끌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12. 잘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에만 머물러서 낙담과 회의감에 빠지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편람 2.3-4: ‘영성적 대화’ 자료 참조)

미주

- ①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50707500076>
- ② 교황청 국제 신학위원회,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 CBCK, 2021

참고 문헌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령 안에서 대화 - 관계와 소통」, CBCK, 2025



사순 제5주간 | 판공문제

01 병을 앓고 있던 라자로가 살던 마을과 그의 자매들의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유다 – 마르타와 요안나
- ② 예루살렘 – 마르타와 살로메
- ③ 베타니아 – 마르타와 마리아
- ④ 갈릴래아 – 마리아와 요한

02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나는 ()이요 ()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26).

03 라자로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이 병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 ②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 ③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 ④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04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신원을 다음과 같이 드러냅니다.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시며 ()이심을 믿습니다”(요한 11,27).



사순 제5주간 | 판공문제

05 예수님께서 라자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쌍둥이’라고 불리는 제자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

- ①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 ②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 ③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 ④ “다시 유다로 가시렵니까?”

06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라자로를 부르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 ② 라자로의 시신이 사라졌다.
- ③ 천사가 내려와 라자로를 일으켰다.
- ④ 라자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07 ‘성령 안에서 대화’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 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 ②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것
- ③ 개인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
- ④ 기도와 경청을 통한 대화 방식

08 ‘성령 안에서 대화’의 신학적 바탕이자, 참여자들이 서로를 경청하고 공유하기 위해 의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① 합리적 판단력
- ② 자비의 영성
- ③ 사목적 지혜
- ④ 신앙 감각

09 시노드 여정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 ① 성령의 이끄심에 따른 공동체적 식별 과정
- ② 소공동체 운영 강화
- ③ 교회의 전통 유지
- ④ 교회의 재산 관리

10 '성령 안에서 대화' 방법 중 참가자들이 서로의 발표를 듣는 동안 강조되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 ① 토론 주제에 대한 논리적 논쟁을 준비한다.
- ② 성령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의견을 나눈다.
- ③ 자신의 경험과 의견만 생각한다.
- ④ 다음 발표 순서를 준비한다.

2026년 부활판공문제집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최종 문서

발행일	2026년 1월 26일
발행인	이용훈
편집인	김태완
발행처	수원교구 복음화국
주 소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정자동 578)
편 집	수원교구 복음화국 기획연구팀
전 화	031-360-7631
F A X	031-360-7840
E-mail	v2-gospel1@casuwon.or.kr
디자인	하상출판사
전 화	031-243-1880(대)

성명(세례명)

전화번호

본당

구역·반

※ 본 출판물에 대한 사항은 수원교구 복음화국으로 사전 문의 바람이며 모든 내용의 임의 변경 및 복제를 불허합니다.



이 책의 본문용지는 수원교구에서 진행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봉헌”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친환경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